

정읍시, 농가에 129억 시비 직불금

전액 자체 재원 당초보다 20억 늘려…논·밭 구분없이 지급
1만3440명 혜택…기본형은 14일·추가분은 5월중 지급키로

정읍시가 고물가와 쌀값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시비 직불금을 확대해 농가 소득 안정에 나섰다.

정읍시는 올해 시비로 지급하는 농업인 직불금을 당초 계획보다 20억원 늘린 총 129억원 규모로 확정해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전액 정읍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생산 기반을 보

호하기 위한 지원으로 논과 밭의 구분 없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지를 합산해 0.1㏊ 이상 3㏊ 이하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수혜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약 1만 3440명에 달한다. 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급 시기를 두 차례로 나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109억원은 14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

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 현실을 고려해 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추가분 직불금은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업계에서는 이번 직불금 지원 확대가 단기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물론 침체된 지역 농촌 경제에 일정 부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확대된 시비 직불금이 고물 가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최대 70% 지원

전문 아이돌보미 가정 방문
생후 3개월~12세 이하 대상

정읍시가 양육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고자 올해부터 정부지원금 외 시비를 추가 투입,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면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금의 30%, 2인당 이상은 70%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차등된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신청 방식에도 유연성을 뒀다.

이용일 전월부터 예약하는 ‘정기서비스’ 외에도 갑작스러운 어근이나 출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해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다. <정읍시 제공>

할 수 있는 ‘단기서비스’가 있고 시작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긴급 돌봄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돌봄서비스 신청과 본인부담금 지원을 일괄 신청하면 되고 기존 서비스 이용의 경우 정부 지원유형 재판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원 확대가 더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적극 홍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질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승합·화물차 재산기준 완화 등

고창군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군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창군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될 위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군의 사회보장급여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 ▲승합·화물차동차 재산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증위소득 65%이하 등이다.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사용 중인 1t 이하 화물차동차 기준 재적용을 통해 적합 대상자를 찾고 저소

득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부적합자 분류 76세대에 대해서는 다음달 9일까지 올해의 선정기준을 재확인해 적정 복지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일괄 안내와 궁금사항 위주의 안내문을 만들어 대상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확인하며 지원 체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응도를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북자치도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혈액으로 치매 위험도 조사

검사비 무료…다음달 27일까지 60~70세 2000명 선착순



남원의료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위한 체혈이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 제공>

한 후 예약일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절차는 1차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를 토대로 정상군에 한해 2차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1차 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추가적인 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검사 후에는 시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치매 예방 교육 앱 ‘기억하리’를 활용한 인지훈련과 치매 예방 콘텐츠 제공 및 신체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복분자, 여성 난임 개선 효과 규명’

고창식품산업연구원

고창군 출연기관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최근 연구를 통해 복분자의 여성 건강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연구는 여성 난임 증가와 생식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천연물 기반의 안전한 여성 건강관리 대안 및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고창군 복분자는 엘라그산,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효과 및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성분이 풍부한 지역

특화 농산물이란 점에 이번 연구는 복분자 연구의 방향을 여성 건강 영역으로 넓히는 계기되고 있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전임상 연구 결과 ‘다낭성난소증후군’ 동물모델에서 복분자 투여군은 체중 증가가 전반적으로 억제되고 일부 주출률 투여군에서는 난소 비대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고창군과 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복분자를 여성 생식·내분비 건강 중심의 기능성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시민기록가 양성과정 개강

역사·문화 탐방하고 연구해 데이터화…구술 채록 실습 등 교육

남원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연구해 데이터화하는 아카이브 구축에 나섰다.

남원시는 최근 혼불문화관에서 남원다음관의 ‘2026년 제1회 시민기록가 양성과정’이 총 8회 16일까지의 일정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전북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남원다음관은 전북대학교 및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와 협력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남원다음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 기록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마을 아카이브 이해, 구술사 방법론, 구술 채록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기록의 주체’가 된다.

특히 ‘남원 기록화 사업’ 10차 대상자인 사매면을 배경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혼불 속의 사매면’과 삶의 이야기를 구술 기록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